

저가 여행상품 알고보니 유류할증료 뻥튀기

대부분 동남아 상품…최대 75% 부풀려 관리·감독 기관도 없어…소비자 주의보

태국 푸껫으로 가족휴가를 계획하는 김모(43)씨는 인터넷으로 여행상을 확인하다 한 인터넷 오픈마켓에 올라온 3~5일 일정에 50만원이 채 안 되는 싼 가격의 상품이 눈에 들어왔다. 왜 이렇게 살까 의심스러웠다. 그런데 상품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항권권 가격을 낮추는 대신 유류할증료를 뻥튀기 하는 식으로 가격을 낮춰 제시한 것 이었다. 같은 조건의 항공권 가격을 검색해 보면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는 14만7100원이었다. 여행사가 4만원이

넘는 웃돈을 챙기려한 셈이었다.

일부 온라인 여행사들이 '조특가' '최저가'를 앞세워 관광상품을 제시하고, 유류 할증료를 최대 75% 부풀려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25개 여행상품을 무작위로 추출해 가격실태를 조사한 결과 80%(20개)가 항공사가 공시한 유류할증료보다 최대 75%나 바가지를 써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라 승객에게 부과하는 할증요금으로 항공사별로 책정돼 매달 사전 고지되는데 국제선의 경우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MOPS)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같은 기간, 같은 지역으로 운행하는 동일 비행기의 경우 유류할증료는 동일해야 한다.

컨슈머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를 뻥튀기한 상품은 대부분 '최저가' 등을 내세운 저비용 항공을 이용하는 동남아 상품이었다.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한 후 유류할증료로 재값을 받는 셈이었다. 소비자들이 유류할증료는 모든 상품이 똑같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착안해 이 같은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25개 항공상품 가운데 유류할증료가 가장 높게 책정된 상품은 6월 티웨이항공을 이용해 태국으로 가는 P여행사의 '방콕 파타야' 패키지였다. 이 상품은 9만1000원인 유류할증료를 75%나 올려 16만원으로 책정했다.

방콕으로 가는 N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의 경우 9만1000원인 유류할증료를 15만원으로 64%나 부풀렸다. 25개 상품 가운데 항공사가 공지한 유류할증료를 그대로 받는 곳은 미주, 유럽 상품 5개에 불과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무조건 싼 상품을 찾다 보니 이런 가격구조를 유지해왔다"며 "업계의 관행이지만 유류할증료 내역을 상품 소개에 적어놓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미리 판단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여행상품의 가격 수준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유류할증료가 정상 가격보다 얼마나 더 부풀려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항공권의 실제 유류할증료는 각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유류할증료를 가지고 '꼼수'를 부리는 여행사를 제재하는 제도나 감독기관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는 항공요금과 관련된 것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밝혔으며, 국토부는 여행상품을 만들어 파는 곳을 규제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현재 여행상품 가격 꼼수를 감독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실태 파악도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스스로 상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형건설사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

토목·건축 등全업종으로 확대

대형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토목건축업종 뿐만 아니라 전체 업종에 대해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형 건설사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협회 제도는 5개 종합건설업종(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가운데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중소 건설사의 업역(業域)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대형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목과 건축 공사도 토목건축(토건)과 마찬가지로 토건 시공능력평가에 1200억 원 이상인 업체가 해당업체 시평액 1% 이하의 공공공사에는 입찰할 수 없게 된다. 토목·건축에 비해 공사규모가 작은 산업·환경설비, 조경 업종은 업체 시평액의 3% 이하의 공사에 입찰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현재 147개 토건업체가 소규모 공사 입찰 제한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한 대상 업체가 202개 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번 조치로 9500억 원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사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시는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 공포한 뒤 2014년에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된다. /임동률기자 exian@



기아자동차 광주·전남지역본부가 18일 기아차 서광주점에서 '더 뉴 K5' 신차발표회를 가졌다. '더 뉴 K5'는 이전 모델보다 역동적이고 날렵해진 외관 디자인과 고급스러움을 더한 실내 디자인을 갖추는 등 상품성을 크게 높였다. (기아자동차 제공)

SK엔카 광주서 어린이 자동차 교육

중고차 전문기업 SK엔카가 18일 광주에서 지방 최초로, 어린이를 위한 자동차 교육 프로그램 '키즈엔카'를 광주 송암지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키즈엔카'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안전하게 자동차를 타기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매달 4회 정기적

으로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4~7세 유치원생으로 최소 20명에서 최대 40명까지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SK엔카 직영몰 홈페이지(www.encodedirect.com)에서 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5월 생산자물가 2.6% 떨어져…8개월 연속 하락세

생산자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8일 내놓은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6% 하락했다. 전월(-2.8%)을 제외하면 2009년 10월(-3.1%)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 0.5% 떨어진 이래 8개월 연속 하락세

를 계속하고 있다.

김민수 한은 물가통계팀 과장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원·달러 환율이 소폭 떨어지고 낮은 수준의 유가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고철(-18.5%), 동판(-17.3%) 등 1차 금속제품(-11.9%)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휘발

유(-10.3%), 벙커C유(-15.2%) 등 석탄·석유제품(-8.5%) 역시 대폭

내렸다. 폐지고기(-24.0%), 쇠고기(-14.1%), 오이(-30.2%), 사과(-18.0%) 등 먹거리 물가도 줄줄이 낮아졌다. 반면에 배(39.7%), 무(55.0%), 양파(133.8%) 등은 크게 올랐다. /연합뉴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개소

광주디자인센터 입주기업 교육·마케팅 등 지원

광주디자인센터가 18일 '디자인 특화'를 위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사진)를 19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사업화 공간 및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수익창출과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업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비즈니스센터는 지난 3월 중소기업청이 시행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지정' 공모에서 '디자인' 분야로는 최초로 신규 지정됐다.

광주디자인센터 5층에 마련된 비즈니스센터는 1인실 10석, 4인실 3석 등 총 22석 규모의 사무실

로 꾸려졌으며 사무공간과 공동 회의실, 디자인 정보자료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광주디자인센터는 입주한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제공과 창업 및 경영 관련 각종 전문가 상담, 교육 지원, 마케팅 지원, 일감 연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광주디자인센터는 19일 오전 11시 센터 5층에서 이의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등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 문의 (062-611-5052).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강화

보증 가입 없이 임대사업 못한다

앞으로 신규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사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대주택도 보증가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1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한 경우에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증 의무가입 대상 공공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문제가 해소돼 임차인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 참숯 올식 토종 참숯닭 / 옥 청동오리 / 옥 삼계탕
- 한방 백숙 / 한방 청동오리 / 촌닭백숙

토종참숯닭 40,000원
촌닭백숙 38,000원

온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 옛터 062-515-5757(옻칠옻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뉴병원 뒤(구, 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

CJ hello tv

헬로tv 가입 하시면 LG LED TV 반값!

42형

LG전자

LG LED TV

42형 IPS LED TV

Full HD LED TV

<p